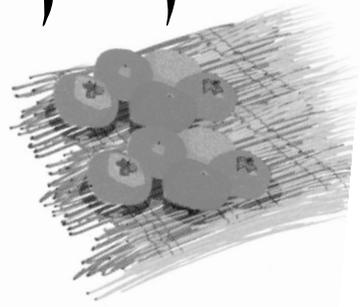


황토집 이야기

김동정 / 자유기고가



문명은 많은 변화를 몰고 왔지만, 무엇보다 인간의 본성을 빼앗아 갔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한다. 우리가 사는 집만 해도 그렇다. 언제부터인가 흙집은 하나 둘 사라지고 현대식 설비를 갖춘 아파트며 주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다. 모든 것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해결되는 세상에서 옛 삶의 방식을 고집한다는 것은 어쩌면 세월에 뒤떨어진 생각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지금 변화만이 살 길이라고 소리 높여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옛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날 수 있다. 그네들은 한결같이 없고 힘들게 살던 옛날을 떠올리며 향수에 젖어든다. 벚짚으로 지붕을 덮고 황토집에 살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지금의 삶이 아무리 편리해도 소박하고 정이 묻어나던 그때가 더 좋았다고 말한다. 가끔 여행 중 산자락에 포근히 안긴 초가나 흙담을 대할 때가 있는데, 나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안온해지곤 한다. 그 평화로운 정경은 나를 동화속으로 안내한다.

욕심 없이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네들이 부러워 보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말이다.

가끔 지금 살고 있는 집(아파트)이 너무 갑갑하고 메마른 느낌이 들어 전원생활을 꿈꾸곤 한다. 더불어 초가에서 살던 그 시절이 그려진다. 내가 중학교를 다닐 때였으니 어느덧 20여년을 훌쩍 넘긴 오래전의 일이다. 흙담이 있고, 마당 한켠 에는 우물이 있는 전형적인 초가집이었다. 몇 년 전 저 세상으로 가버리신 아버지는 해마다 늦가을이면 벚짚으로 지붕을 이어 덮고, 담을 황토로 덧이겨 바르셨다. 산에서 파온 황토는 물을 붓고 이기면 차져서 찢득거리고 마르면 단단해졌다. 그 흙으로 벽을 바르는 일이 왜 그렇게 싫었던지, 시멘트로 치장된 다른 집들을 보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내 나이 삼십대 후반에 이른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초가에서 살던 그때가 그래도 행복했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나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사철마다 바뀌는 들뜬이며 산 색깔은 그 얼마나 눈부셨던가.

우리는 지금 보일러, 태양열 주택, 미래 주택



들이 속속 선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초가를 보기란 무척 어렵다. 산촌에 가도 초가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이다. 나는 여러분께 주장하고자 한다. 네모반듯한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래서 도무지 자연의 기운을 느낄 수 없는 삭막한 아파트에서 벗어나 흙집을 짓고 살라고. 사실 흙집에 대해 좀 알고 나면 콘크리트 숲에 둘러싸여 사는 지금의 삶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자연을 거스르며 사는 것인지 알게 된다.

인간에게 흙과 땅은 절대적 힘을 가진 생존과 삶의 근간이다. 원초적인 고향이다. 인간은 흙을 떠나 살 수 없으며 흙의 일부일 뿐이다.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 속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환토관(還土觀)이라 한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러한 흙의 상징적 의미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흙, 곧 땅을 재산의 수단으로 삼는 다든지 기계 문명에서 파생돼 나온 온갖 찌꺼기들을 흙 속에 묻음으로써 우리의 정신적 고향인 흙을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말이다.

요즘 들어 일부이긴 하지만, 흙집을 짓고 살겠

다는 이들이 늘어간다. 그 옛날 흙담으로 둘러쳐진 초가에서 살던 때가 못내 그리운 까닭이다. 게다가 황토집의 효능이 하나 둘 밝혀지면서 육체적인 편안함보다 마음의 건강을 더 챙기겠다는 생각도 깔려 있으리라. 도시 문명에 염증을 느낀 이들은 이렇게 흙과 함께 하는 생활, 흙과의 친화 교류, 흙으로의 회귀를 갈망하며 또 다른 삶을 준비하고 있다. 첨단문명이 삶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 이 때, 그 편리하고 좋다는 신식 주택을 마다하고 흙집에서 살겠다는 것은 자연과 가까이 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자 하는 자연주의의 발로이리라.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집, 흙냄새를 맡을 수 있는 집, 자연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집, 황토집은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 제격인 것이다.

현대인들은 많은 시간을 시멘트의 독성이 그대로 뱀 방에서 보낸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대화를 나눈다.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병을 얻는다. 시멘트의 독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한 가지 예로, 벽돌

을 담가 놓은 물에 빠진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갈 정도라고 한다. 이처럼 심각한 시멘트의 독이 몸 속에 누적되면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

황토집은 우리나라 기후와 풍토에 가장 알맞은 집이다. 사계절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 주고 여름철의 습기를 흡수했다가 건조한 계절에 뿜어주는 이상적인 건축 형태이다. 황토 한 손갈에는 무려 2억 마리에 달하는 미생물이 들어 있어 누런이 흙을 가까이 하면 몸이 튼튼해진다고 한다.

황토가 질병의 치료나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어떤 이는 황토집에 살면서 그 흔한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황토로 만든 생명수는 신비한 효험을 지니고 있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돗물, 샘물, 우물물을 한 말쭙 부은 독에 깨끗한 황토를 떠다가 체로 걸러서 넣는다. 이렇게 해서 하룻밤 정도 지나고 나면 흙은 바닥에 가라앉고 질 좋은 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은 차게 마셔도 되지만 끓여 먹으면 더욱 좋다고 한다. 이 물로 몸을 씻기도 하고, 김치나 장을 담글 때 사용하면 한결 좋은 맛을 낸다는 것이다.

황토의 효능은 옛 의서에서도 잘 나타난다.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향약집성방' 같은 의

서에서는 황토를 다른 약초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치료제로 보고 있다. 또 고려시대에도 황토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나이가 많은 재상이나 병자들의 치료용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장작불 땀 황토방에 누워 있으면 몸으로 느끼는 따스함이 보일러나 가스로 전달되는 온기와는 다르다. 뭐랄까, 몸의 노폐물이 깨끗이 걸러지는 느낌이다. 토방 아랫목에 누워 명상에 잠기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뽀뽀한 흙냄새를 맡고 있으면 마음이 더없이 훈훈하고 피로가 말끔히 풀린다. 황토집 굴뚝에서 나는 연기는 그 얼마나 목가적인가.

옛 사람들은 황토가 벽사의 힘이 있다고 믿었다. 때문에 제를 올리는 곳이나 출산을 했을 때 금줄과 함께 황토를 뿌려 놓거나 뭉쳐 놓았다. 이렇게 해서 악귀나 부정의 출입을 막았다 한다. 서낭제를 올릴 때 새끼 금줄을 둘러치고 황토를 깔아놓는 예가 그런 연유에서이다. 옛 사람들은 이처럼 흙을 밟고 살아야 건강하고 탈 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자연과 함께 살고자 했던 우리네 조상들. 오늘날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기계, 전자 문명은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지구라는 별을 망가뜨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새로운 세기, 새 천년에 토방의 아랫목이 자꾸만 생각하는 것은 왜일까? 흙집 온돌방을 짓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